

# CM전문가와 CMP 협의회 역할

## The Role of CMP And CMP Association



글 | 嚴翼俊

(Um, Ik Joon)

건축시공기술사, CMP협의회회장,  
전 한국기술사회부회장 겸 CM교육원장,  
CMP, CVS,  
E-mail : ijum@dreamwiz.com

The number of Construction Management Professional(CMP) is 2700 among 4600 of the total CMPs in Korea. Their characters and abilities are quite different from others. Because they must have 10 year field experiences, complete 180 hours CM oriented lectures and pass the certification test including written and interview in depth. And then, their level of standard is maintained by the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CPD) program, periodic forum, case study seminar and CMP vision execution strategy sponsored by the CMP Association.

### 1. 머리글

1997년 건설 사업관리(이하 CM)가 국내에 도입 되었고, 이듬해부터 한국기술사회가 CM전문가(이하CMP)를 양성하기 시작하면서 2009년 현재 65기 2700명의 CM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이들의 활동영역은 공무원 20%, 시공사 20%, 엔지니어링사 40%, 정부투자기관, 군, 연구기관 등이 15%를 점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배출된 CM전문가가 4,600여명 인데, 한국기술사 CM교육원에서 양성·배출한 인원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므로 한국기술사회 CM교육원은 CM전문가 교육의 산실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편 건설 사업관리 용역의 규모는 2004년까지는 연간 1,000억 원 미만에 불과하였지만, 2005년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4,500억 원 규모였고, 올해는 공공부문이 1,745억 원, 민간부문이 4,500억 원으로 6245억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건설 사업관리 용역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CM에 대한 필요성, 효과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산 10% 절감 정책의 핵심 전략이 CM을 활용하는 길이라는 것도 공감하고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CM포럼을 구성하였고, 각종 제도 보완 및 개선을 CM활성화를 통하여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최근에 대표로 취임한 운영 의원이 밝힌바 있다.

이처럼 활성화 되어 가고 있고, 중요시 되어가고 있는 CM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냐는 순전히 그것을 관리하는 CM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물론, 그 CM전문가는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소정의 자격 인증과 부단히 자기 계발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제3대 기술사회 CMP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필자는 감히 기술사회에서 양성·배출한 CMP가 충분히 위의 요건을 갖추고 발주자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계속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 2. 한국기술사회 CMP의 자격 및 자질

한국기술사회에서 양성·배출하는 CMP는 교육입과 기준에서 자격인증까지의 수준과 절차가 쉽지 않다.

건설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을 쌓은 자만이 CMP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40여개 CMP관련 과목을 180시간 이수한 후에 소정의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CMP 인증을 수여하기 때문이다. 인증시험은 기술사 시험에 버금가는 필기시험과 심층면접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여타 기관, 단체에서 배출한 CM전문가와는 확연히 차별화 되어있으므로 발주기관에서는 한국기술사회 CMP를 믿고 활용하시기 바란다.

한국기술사회에서 양성·배출한 CMP는 CPD 교육을 통하여 부단한 자기계발을 도모한다.

CMP인증을 받게 되면 기술사회 CMP협의회에 가입하여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세미나, 포럼에 참가함으로써 신기술, 신공법, 신제도를 익히게 되고 전·후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게 될 CMP 기술연구발표회를 통하여 자기가 연구한 결과물

과 자기가 체험한 실제프로젝트의 케이스 스터디를 발표하게 된다.

생생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지식 커뮤니티"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나가게 된다.

또한, 각종 정부기관의 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CMP기술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연구단체·학술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프로젝트 수행에도 중추적 역할을 한다.

한국기술사회에서 양성·배출한 CMP는 인적 네트워크가 다변화 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기술사회 CMP는 CMP협의회를 구심점으로 전문분야간, 업역간, 근무처간, 지역간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지도록 하고 있다.

토목, 건축, 플랜트, 기계설비, 전기설비, 조경 등 모든 전문분야에 골고루 포진되어 있으며 종합건설, 전문건설, 설계용역, 감리 등 모든 업역에도 두루 근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 인천, 광주, 대구 등 지방에도 지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국토관리청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 3. CMP의 역량강화 전략

CMP의 수월성과 필요에 부응하는 적시성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우리 CMP 협의회는 CMP비전을 제정하여 선포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려고 한다.

### 1. 건설 사업관리 전문가 활용에 관한 정책대안

개발, 제시의 브레인역할을 한다.

2. 건설 사업관리 전문가 활용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CMP요소기술을 개발, 보급하는데 앞장선다.
3. 유관단체,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하여 CM전문가 활용 증대 및 역할을 강화한다.
4. 자기계발과 결속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우리가 찾아가야 할 블루 오션전략을 수립, 실천한다.

또한 CMP협의회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 추진할 예정이다. 2009년은 자체 역량강화로 조직정비와 결속력 강화에 집중하여 자기계발과 인적네트워크 구성을 한층 향상시킨다.

2010년은 대외역량 강화기로 문호개방을 통한 CM관련 자격 통합 및 사단법인화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2011년 이후는 CMP 위상 정착기로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고 각종사업 및 활동을 통하여 국가건설 산업 선진화에 기여토록 한다.

이를 위하여 "CMP 위상강화 특위"를 설치하여 CMP 우대, 활용방안, 수준유지 등을 장·단기 전략으로 구분하여 연구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것이다.



〈그림1〉 CMP 기술개발포럼 전경

### 맺음말

꾸준한 예산 절감과 작은 정부의 지향이 계속되는 한 CM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음은 CM 적용 시에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사의 범위이다.

- 설계 감리 또는 책임감리 대상 공사로써 종합적인 관리 업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 공사비 절감 또는 공기 단축의 필요성이 높은 공사
- 공사의 특성상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공기 지연 등의 잠재적 위험이 예상되는 공사, 설계 및 시공부분 관리 업무의 난이도가 높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공사
- 발주 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등

따라서 각급 발주청에서는 위와 같은 유형의 공사가 있으면 CM을 적극 활용하고 그때에 필요한 기술자는 CMP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우리 CMP협의회는 발주자가 원하는 CM전문가의 수준유지를 통해 그 명성에 걸 맞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차제에 CMP 여러분께서도 중흥기를 맞는 CMP협회에 적극 동참하여 CMP협의회를 통한 수준유지·자기계발 및 국가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하실 것을 당부한다.

〈원고접수일 2009년 4월 27일〉